

# 용산구, 마을버스 노선 확 바꾼다

원효·이촌2동 등 취약지역 중심 접근성 높여  
한국교통대와 손잡고 내년부터 단계적 개선

서울시 용산구가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 전면 개선에 착수한다. 구는 이를 위해 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노선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18일 용산구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용산구청 6층 안전건설교통국 회의실에서 '용산구 마을버스 노선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의 주요 목표와 추진 방향, 핵심 과제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균형 잡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원효2동·이촌2동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노선을 발굴하고 기존 노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역은 국립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과의 협

업으로 진행된다. 보고회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신규 노선 발굴 △분화셔틀버스와 마을버스의 역할 재정립 △노선 중복 최소화 및 접근성 향상 방안 등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원효2동·이촌2동 등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을 도입해 주민들의 이동편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셔틀버스와 기존 마을버스의 이용 실태를 분석해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운행체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선 중복 최소화 및 노선 합리화를 통해 주민 생활권에 밀착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선 구조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구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방식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마을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32개소를 추가 설치 중이며 이달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범의 예방이 필요한 정류소에는 112상황실과 연동되는 '안심벨'을 설치해 주민의 안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교통은 주민 삶의 기본 인프라로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중간보고회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된 마을버스 노선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용산구 해방초거리 마을버스 정류소에 안심벨이 설치돼 있다.

용산구



금천구가 40~67세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요리와 식사를 함께하는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을 운영한다.

금천구

## 금천구 '행복한 밥상' 운영 중장년 1인 가구 20명 모집

서울시 금천구가 19일부터 중장년(40~67세) 1인 가구 대상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행복한 밥상'은 식사와 고립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면서 소통하는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을 정규와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총 7기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정규 프로그램은 요리실습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는 2기도 정규 프로그램이다. '지중해식 식단'을 주제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금천청년꿈터에서 진행된다.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40세부터 67세까지의 중장년 1인 가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9일부터 온라인 또는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방문을 통해 2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이기에 양천구청장이 15일 'Y교육박람회 2025'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Y봇'의 환형 인사에 웃으며 화답하고 있다.

양천구

## 양천 'Y교육박람회 2025' 성료 3일간 6만5000명 관람객 방문

서울시 양천구가 주최한 전국 단위 교육 축제 'Y교육박람회 2025'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양천구청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총 6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은 Y교육박람회는 '그린 스쿨링(Green Schooling)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를 주제로 자연과 환경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미래교육의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행사에는 교육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박람회의 공신력과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Y교육포럼'에서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비롯한 환경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췌도' 배우 김석훈 교육 크리에이터 미미미 등 명사들이 참여한 강연도 큰 인기를 끌었다.

전국 30개 고교와 인천글로벌캠퍼스 등이 참여한 '진로진학박람회'에서는 입시정보 제공과 일대일 상담이 진행됐고 1000여 명이 참석한 입시 설명회도 열렸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 “매달 20일엔 전통시장 가자!”... 강남구, 온누리상품권 최대 20% 환급



강남구 영동전통시장 일대가 저녁 시간대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강남구

## 강남개포·도곡·영동시장 3곳 1인 최대 20만 원페이백 행사

서울시 강남구가 20일 관내 전통시장 3곳에서 '온누리상품권 20day' 페이백 이벤트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구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온누리상품권 20day'는 강남개포시장·도곡시장·영동전통시장에서 매달 20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20%를 온누리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형)으로 돌려주는 행

사다.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현장 이벤트 부스에 제출하면 즉시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강남개포시장은 파라바게트·영동전통시장은 중외약국·도곡시장은 상인회 사무실 앞에 이벤트 부스가 차려진다.

구는 지난달 21일 첫 시범 운영에서 페이백 예산이 1시간 만에 소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확인하고 매월 정례 운영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5월 행사는 가정의 달 이벤트와 함께 풍성하게 꾸러진다.

영동전통시장은 20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나 더' 이벤트를 개최해 구매 고객에게 페이백 혜택에 더해 경품을 증

정한다. 또한 논현초등학교와 협업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꽃바구니 만들기 교실'을 운영한다. 도곡시장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케릭터 솜사탕 만들기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와 구매 고객을 위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구민들이 알뜰한 장바구니를 통해 가족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상인과 주민이 함께 웃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 중구, 여름 종합대책 추진... “폭염·폭우 꼼짝마”

## 10월까지 재난 대응 총력 무더위쉼터 66개소 운영 '안전대책본부' 15일 가동

서울시 중구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며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구는 △폭염 △수방 △안전 △보건 △홍보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구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폭염 대응을 위해 중구는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동주민센터와 경로당·복지관·도서관 등 총 66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한다. 올해는 체육시설 3곳을 새로 지정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특히 저소득 고령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안전숙소'도 운영하며 객실당 최대 9만 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방문·전화 모니터링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보호를 위해 1일 2~3회 현장 순찰과 건강 상담, 생필품을 지원한다. 냉



김길성(가운데) 중구청장이 15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판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구

방용품과 전기요금·에너지 바우처 등도 폭염 취약가구에 지원된다.

건강취약계층 약 3500명을 대상으로는 건강관리반이 운영되며 응급상황 발생 시 방문 진료와 병원 이송도 지원된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고 공사장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간선도로와 전통시장에서는 물청소가 실시되며 물리프로그 및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도 추가 설치된다.

수방대책으로는 태풍·홍수 등 풍수에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 총괄반·교통대책반·구조구급반 등 13개 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수방시설과 수해취약지역은 2월부터 4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쳤으며 248대의

양수기를 점검하고 각 동주민센터와 소방서에 배치했다.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침수방지 시설 설치도 지속 추진된다. 지역 통반장과 자율방재단이 참여하는 빗물받이 명예관리인 600여 명도 운영 중이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가구에는 돌봄공무원이 전담 배치되며 민간 숙박시설 40개소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수해 폐기물은 즉시 수거와 방역이 병행될 예정이다.

구는 민간 건축공사장·지하 보도·급경사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여름철 감염병 및 시중중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체계도 가동한다. △찾아가는 방역특공대 운영 △친환경 해충기피제 분사기 추가 설치 △드요 방역 데이 등을 통해 모기와 러브버그 등 해충 확산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폭염이나 태풍 발생 시 구는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작년 여름 최장기간 계속된 폭염과 집중 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중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 '촛촛복지' 서대문, 전입 순간부터 챙긴다

## 위기가구 초기 발굴 선제 지원 복지안내서 등 3종 제작·배포

서울시 서대문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한 '위기가구 발굴 3종 세트'를 제작·배포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입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위기가구를 찾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15~20%에 달하는 가구 전출입률'에 착안한 것이다.

구가 신규 도입한 3종 세트는 △전입세대 복지정보 안내 책자 △위기 징후 체크리스트 △복지정보가 인쇄돼 있으며 부동산 계약서를 넣어 보관할 수 있는 클리어 파일이다. '안내 책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주거복지 △아동·청소년 지원 △노인·장애인 복지 등 분야별 생활정보를 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건강 악화·사회적 고립 등 개인이나 가구의 위기 상황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수록했다.

황명화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장은 “이 책자를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기 징후 체크리스트'는 통반장과



서대문구청 통합민원실에 전입세대용 복지정보 책자가 비치돼 있다.

서대문구

복지순찰대 등이 전입세대 가정 방문 또는 순찰 활동 중 쓰레기·악취·의복 상태 등의 각종 위기 징후를 인지하고 조기 대응하는 데 활용된다.

'클리어 파일'에는 월세 체납·우편물 누락·실직·고립된 생활 등 '위기가구 징후'와 '이를 알릴 수 있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연락처' 등이 인쇄돼 있으며 이를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인·임차인에게 배부한다.

구는 이러한 '3종 세트'가 주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사회 경제적 어려움·건강 악화·사회적 고립 등 개인이나 가구의 위기 상황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수록했다.

이성현 구청장은 “임대료 체납이나 잦은 이사 등과 같은 거주지 불안정은 복지 위기의 신호인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른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과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